

보다 가까이, 더 친근히 동물 친구들과 교감해요

+ 꼬꼬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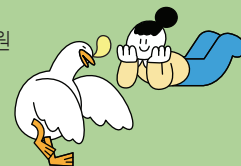
추운 날씨 탓에 야외활동이 쉽지 않은 겨울, 실내 체험 동물원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자. 도심 속에 자리한 꼬꼬체험관에서는 동물들을 눈앞에서 관찰하고 또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이달의 고양특례시의 핫스팟, 우수 체험 농장인 ‘꼬꼬체험관’을 소개한다.



꼬꼬체험관



운영시간 매일 09:00 ~ 18:30 (전화 문의 후, 예약 없이 방문 가능)
체험비 기본체험 9,000원, 기본+달걀 줍기 12,000원, 먹이 추가 2,000원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곳산길 11-10(법곶동)
문의 ☎ 031-922-7677



놀이터보다 재미난 오감 체험 감성여행

한적한 길을 따라가면 귀여운 닭이 그려진 체험관 간판이 방문객을 반긴다. 일산 서구 법곶동에 있는 꼬꼬체험관은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닭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박훈배 꼬꼬체험관 대표는 관상용 닭을 취미로 키우다가 자신처럼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험관을 열게 되었다.

사육장에는 백폴리쉬(영국), 버프실키(미국), 이사벨레그혼(이탈리아), 골드쿠쿠마란(프랑스), 고려백계(한국), 세레마(말레이시아), 샤모(태국) 등 세계 각국의 대표 닭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체험 신청 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달걀 줍기 체험이 가능하다. 닭들이 갓 낳은 딱딱딱한 달걀은 직접 꺼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동물들과 함께하는 교감형 생태동물원

이곳에는 닭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산양, 양, 염소, 돼지, 라쿤 등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이뤄진다. 동물과 눈을 맞추며 먹이를 주는 체험은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당근을 내밀면 저마다 서로 먹이를 달라며 우르르 모여든다. 꼬꼬체험관은 가축사육업허가 등록이 된 곳으로 전문 담당 수의사가 동물들의 건강을 수시로 살피고 있다.

체험관 곳곳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실외 지붕이 있어 날씨가 궂은 날에도 체험할 수 있고, 이동 경로에 턱이 없어 휠체어나 유모차로 다니기에도 편리하다. 체험 예약은 홈페이지와 전화, 인스타그램 DM으로 예약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30~40분 정도 소요된다.

Mini Interview

박종욱(꼬꼬체험관 팀장)



꼬꼬체험관은 200평 정도의 규모로, 100여 마리의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얼마 전, 22살 육지거북 한 마리를 기증받아 아이들에게 소개하니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12월부터는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추가할 예정이니, 추운 날씨에 아이들과 갈 만한 체험 장소를 찾는다면 꼬꼬체험관을 찾아주세요!

신삼용(화정동)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풀리면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외부 체험을 하고 싶어 찾아본 중에 꼬꼬체험관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 동물이 있는 곳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이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이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